

결혼 1년차 여성의 새로운 가족되기 경험

박미라, 여형남*, 양현주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A New Family Experience within a Year of Marriage

Meera Park, Hyeongnam Yeo*, Hyun-Joo Yang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결혼한 지 1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족되기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의 결혼한 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없고 임신하지 않은 여성 9명을 편의표본 추출법인 눈덩이 표집법으로 모집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 인터뷰와 녹음, 메모 등을 사용하여 2019년 7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혼한 지 1년 이내의 여성의 새로운 가족되기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연구 질문은 '결혼 후 새로운 가족되기를 겪은 경험은 무엇인가?' 이었다. 인터뷰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혼 부부의 새로운 가족되기 경험으로 4가지 구성요소와 11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4가지 구성요소는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겪음, 새로운 가족이 생김, 새로운 역할이 증가함,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결혼 초기 서로와의 다름과 새로운 환경의 적응으로 가족되기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완화하고 원만한 가족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원만한 부부되기 가족되기에 도움이 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new family experience for women within a year of marriage through phenomenological methods, pursue the essence and describe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in depth. The participants were nine women who had been married within a year, had no children and were not pregnant. They were recruited by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019 to February 2020 using in-depth interviews, recordings and memos. The key research question to know a woman's experience of becoming a new family within a year of marriage was "What is your experience of becoming a new family member after marriage?"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newly married couples resulted in four components: conflict due to differences, new families, new responsibilities and new beginnings. In addition, differences between partners in the early stages of marriage and adaptations to a new environment made it difficult to become a happy family. Therefore, newly married couples should be provided with relevant education programs to help them understand each other and make an amicable family.

Keywords : Becoming A Family, Couple, Early Marriage, Phenomenologic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NRF-2018R1C1B5043387).

*Corresponding Author : Hyeongnam Yeo(Changshin University)

email: yhn072@cs.ac.kr

Received August 4, 2021

Accepted March 4, 2022

Revised August 26, 2021

Published March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많은 조정과 협력에 의한 적응이 요구된다[1]. 이 시기의 신혼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며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시기의 부부는 대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거나 지각하고 있는 낭만적인 사향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결혼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결혼 이후에는 새롭게 생기는 부부관계 며느리와 사위 등의 역할 변화 적응과 부부간의 배려, 가사분배, 서로의 생활방식 차이의 합의 등이 필요하며, 또한 새롭게 형성되는 친족 관계에도 적응해야 하는 등의 과업이 많다.

결혼 초기 부부는 결혼생활에 대한 나름의 소망과 가정을 꾸리는 것과 관련한 계획을 잘 실현하기를 원하는데,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한다[2]. 이러한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한다면 이혼을 결정하기 쉽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3], 2020년 이혼건수는 10만 6,500건이고,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으로, 많은 수의 부부가 결혼 후 직면하는 긴장과 갈등상황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 특히 결혼초기에는 습관이나 생활문화의 차이와 결혼에 실망감 등으로 결혼생활의 어렵다고 하여[4-6] 이 시기의 원만한 적응은 이혼율을 줄이고, 결혼생활 유지와 삶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나 잘 적응되느냐에 따라 결혼초기 부부관계와 가족관계형성의 성공여부가 좌우되며, 이 시기의 원만한 적응은 결혼생활 전체의 질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므로[7], 결혼초기의 가족되기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함에 따라 가족의 생활양식도 다양해졌고, 현재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인해 가족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배울 기회가 적어져서[8] 결혼생활을 지도할 지침이나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주로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초기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거나[4]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9] 등의 양적연구가 이루어졌고, 결혼초기의 대상자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변화에 대한 질적연구[10]가 있을 뿐 신혼부부의 가족되기 적응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되기 적응 경험을 탐색

하고, 원활한 가족관계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려고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혼 부부의 가족되기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결혼 후 새로운 가족되기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결혼 1년차 여성의 새로운 가족되기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기 위하여 Giorgi [11]의 현상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G도의 결혼한 지 1년 이내이며, 태어난 아이가 없으며,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 9명을 편의표본 추출법인 눈덩이 표집법으로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자 소개와 연구의 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할 것이며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과 연구과정 중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자와 먼저 전화통화로 면담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였다. 참여자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대상자의 집이나 집 근처의 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면담하였으며, 참여자와 면담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메모와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당일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기술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 질문은 ‘결혼 후 새로운 가족이 된 이후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라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결혼 후 겪은 경험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등의 보조질

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 진술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진술을 경청하면서 공감을 표하여, 진술이 자유롭고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는 마지막 참여자 이후부터는 유사한 개념이 도출되어 9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이후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은 개인별 각각 2~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에서 90분이었다.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 되기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분석 방법 중 Giorgi [11]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면담 내용과 필사자료를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참여자가 표현한 기술 하나하나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 되기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면서 구분한 의미단위를 학문적용어로 전환하여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하면서 일관성 있는 기술문으로 통합하여 의미구조를 확인하였다.

2.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 [12]의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중립성(neutrality)의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2명에게 분석 내용을 읽어주었고, 본인이 진술한 경험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시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의 결과에 대한 적합성과 제 3자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결과가 의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결혼 1년차 여성 2명에게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분석된 연구결과에 의미를 공감 한다는 것으로서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면담자료 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분석한 의미에 관하여 연구자들 간에 지속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 대한 자신의

가정, 편견, 선 이해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담 내용을 들으면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반영된 진행이 없었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되기 경험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iorgi [11]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구조화하여 본질적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현상학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9명의 참여자로 부터 심층면담을 통하여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 되기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4개의 구성요소와 10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 되기 경험은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로 '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서로의 다름에 부딪힘',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에 부담을 느낌', '갈등의 해결, 진정한 가족의 시작'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Table 1. Contents of new family experience within a year of marriage

| Constituents. | Sub-constituents |
|------------------------------|---|
| 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 친해지기 위해 시부모님과 자주 접촉함 친해지게 만들려고 남편과 친정부모님을 자주 만나게 함 |
| 서로의 다름에 부딪힘 | 친정의 생활방식과 다른 시댁의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움.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남(결혼 전후가 달라짐) |
|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에 부담을 느낌 | 새로운 가족관계 균형 잡기에 노력하나 힘에 부침 새로운 역할 수행에 부담감을 느낌 |
| 갈등의 해결, 새로운 가족의 시작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됨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 서로의 입장을 존중함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생김 진정한 가족의 시작 |

3.1 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참여자들은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됨으로 가족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거나, 자주 찾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가족구성원

으로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3.1.1 친해지기 위해 시부모님과 자주 접촉함

참여자들은 결혼 후 새로운 가족이 된 시댁과의 잘 지내고 싶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시어른들께 자주 전화하고 찾아뵙고 얘기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였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찍 (시댁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오빠 흉도 같이 봐주고, “오빠가 이랬어요” 하면서 이야기 해주면 어머니도 “아이고, 그랬냐.”면서 맞장구 쳐주시고 하면서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1)

일주일에도 전화 되게 자주 드려요. 왜냐하면 전화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몇 번 마음만 좀 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 사이가 너무 어색해 지더라고요 저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인지 불편하지가 않아요. (참여자 4)

3.1.2 친해지게 만들려고 남편과 친정부모님을 자주 만나게 함

참여자들은 나의 가족과 새로 생긴 나의 사람(남편)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자주 만나게 만들고 친해지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남편은 친정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계속 설득을 시키고 해서 이제 (친정)아빠가 우리 남편한테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아들 왔냐면서 이렇게 하니까지는 오빠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죠. (참여자 2)

3.2 서로의 다름에 부딪힘

참여자들은 결혼 전 자신들이 살아왔던 환경에 익숙해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같이 살다보니 혼자 살 때보다 서로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많아지게 되었다. 결혼 전 가정의 풍습이나 문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등이 서로 다르고, 결혼 전·후 상대방에 대해 가졌던 기대의 차이와 결혼 후 달라진 본인의 모습도 경험하게 되었다.

3.2.1 친정의 생활방식과 다른 시댁의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움

참여자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것과 다른 시댁의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워하였으며, 서로의 생활방식에 적응하는데 불편감을 느꼈다.

다들 바쁘잖아요. 직장생활 자체가... 그래서 우리 친정 같은 경우는 조금 10시 정도 되면 제사를 지내요. 하지만 시댁은 조금 구시대적인 전통을 너무 따르셔서 가지고 12시 땡 되면 제사지내고 막 그런 거예요. 제사지내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참여자 5)

살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먹는 것 식습관, 식습관이 제일 문제예요. 내 판에는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고생해서 음식 만들면 뭘부터 부딪히냐면은 소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 쓰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 안 쓰고 정제염 그것만 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딪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자 3)

3.2.2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남(결혼 전 후가 달라짐)

참여자들은 결혼 전 연애할 때의 모습과 달리 결혼 후에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하고, 힘든 일로 투정을 하면 공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게 되면서 다툼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혼 후 예전같이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속박된 생활을 하게 되는 등 결혼 전과 달라짐을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들이 결혼 후에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스러워하였다.

연애할 때는요. 주말에 (멀리 있는) 나 만나러 오고 그래서 나를 부지런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혼하니깐 이 사람 조금 게으르다 생각했죠. 연애할 때는 결혼 하고나면 다 도와줄 것 같이 이야기 해놓고선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참여자 1)

힘든 일이 있어 하소연을 했는데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보통은 “아! 그래.” 뭐 이러면서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계속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내가 틀렸다고 설득시키려 했어요. (참여자 2)

지금은 남편이 있으니까 친구들을 만나서도 옛날 같이 늦게 못 들어오니까, 놀러 가는 것도 또 오빠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조금... (참여자 8)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집안일 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똑같으니까 집안일도 똑같이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남자는 왜 도와준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참여자 6)

3.3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에 부담을 느낌

참여자들은 양쪽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나 관계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느꼈고, 양쪽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역할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차이에 부담을 느꼈다.

3.3.1 새로운 가족관계의 균형잡기에 노력하나, 힘에 부침

참여자들은 결혼 후 친정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도 시부모님이 신경 쓰이고 눈치를 보게 되어, 양쪽 부모님을 다 챙기게 되었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시부모님이 부담스러우나 부담스러움을 표현하기 힘들고, 시댁에 대한 힘든 점을 말하면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할까 봐 친정에는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속상했다.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친정엄마도 챙기고 싶은데 시댁에 조금 눈치가 보여요. 신랑보기에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께 사주고 싶으면 시어머님 께도 같이 사줘요. (참여자 1)

그러니까 제가 싫은 건.. 제가 한 번씩 시댁에 가는 거는 친정 부모님이 몰라요. 일일이 보고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친정에 가는 거는 시댁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나니까 그게 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참여자 7)

사실은 친정 엄마한테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말 했던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시아버지 생활비는 나라에서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몰라요.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가 걱정할 만한 것들은 거짓말을 하고... 시아버지나 시댁식구들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안심하게 했어요. (참여자 6)

3.3.2 새로운 역할 수행에 부담을 느낌

참여자들은 결혼 생활도 서툰데, 며느리로서 바라는 기대가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감

당하기 위해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 하였다.

제가 만며느리 다 보니까 부모님은 되게 잘해 주시는데 한 번씩 "이제 네가 만며느리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만며느리니까 이렇게 하고 네가 만며느리니까 우리가 너에게 의지를 많이 한다." 이런 말들이 저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참여자 2)

시댁식구들과 시아버지는 터치 안 하셔서 편한데, (시댁의) 큰집식구들이 진짜 말이 많으셔서... 내가 왜 큰집 식구들까지 챙겨야 되지? 할 정도로 너무 챙겨야 할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진짜 많아요. (참여자 4)

제가 자주 못 찾아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요. 하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2주일을 안 했더니 매번 일주일마다 하다가 안 오니까 서운하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5)

저희 집은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신데, 사실 결혼 전 시아버님이 아픈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도 결혼하기 전부터 따라다니고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 이제 계속해서 내가 가족이 되었으니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모르고 결혼 한 것 보다 알고 시작한 거라 '그래 내가 감당해야 될 거면 좋은 마음으로 하자.' 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4)

3.4 갈등의 해결, 새로운 가족의 시작

참여자들은 여태껏 살아온 환경과 자신만이 가진 습관, 가치관이 달라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며,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3.4.1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됨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형성된 가정의 문화, 개인의 습관, 가치관들이 서로 달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서로 그래 내가 뭐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전제를 두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싸우고 싸우는 건 이제 새로운 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뭐 그거 말고는 지금 다 잘 지내고 있고 괜찮아요. (참여자 2)

3.4.2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

참여자들은 결혼하면서 겪게 된 갈등을 부부 간의 이해와 배려, 양가의 노력으로 결혼생활에 빨리 적응하게 되었다.

신랑이 잘해주고 마음을 되게 많이 헤아려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저 하나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친정 엄마로써 어머니는 시부모님으로써 다 관계가 노력하니까 적응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3.4.3 서로의 입장을 존중함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다툼이 있을 때 배우자의 감정이 다치지 않게 상처 주는 말들은 피하고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풀어나가려 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였다.

결혼 전부터 서로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고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려고 하죠. (참여자 1)

감정이 격해졌을 때 부딪히지 말고 일단은 접어두고 나중에 돼서 그런 상황에 “나도 이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면 “아,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풀어가고 있어요. (참여자 3)

남편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 너무 나무라지 말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남편을 좀 존중하면서 마음 안 다치게 잘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참여자 3)

3.4.4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생김

참여자들은 결혼하고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많아져 힘들어하였지만 새로운 가정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을 가고, 역할을 수궁하며 감당해내려고 노력하였다.

오빠랑 살면서 ‘그래도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오빠보다는 내가 집안일을 더 잘하니깐 오빠를 내가 케어 해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들어도 밥도 계속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2)

시댁은 불편하지 않는데, 큰집은 좀 불편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되나,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내가 그 역할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결혼 전에는 사실 저는 진짜 손 하나 까딱 안했거든요. 엄마가 해 주는 밥 먹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걱정 한 번 안 해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 새로 생기잖아요. 밥을 한다든지 나뿐만 아니라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지만 결혼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니까 잘 해내야죠. (참여자 4)

3.4.5 진정한 가족의 시작

참여자들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결혼 전 불안했던 마음과 아픔이 위로받고 회복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또한, 진짜 가족이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기게 됨으로서 든든함을 느꼈다.

자라면서 좋은 기억도 없고 어머니도 점점 아프셔서 안 좋게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들을 시댁에서 많이 채워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진짜 친어머니처럼 정말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버님도 엄청 좋으셔서 갈 때마다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 부분도 너무 좋고. 거기서 얻는 행복도 많은 것 같고. (참여자 3)

뭔가 내 가정이 생겼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있을 곳이 있고, 나만의 공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2)

결혼하니까 좋은 거는 친구도 생긴 거 같고 애인이자 남편이자 진짜 가족이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평생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고 평생 내 편이고. 그런 한 사람의 동반자를 얻었다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든든하고. (참여자 2)

4. 논의

본 연구에서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되기 경험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과정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신혼부부 가족 되기 경험의 의미 구조는 '다름을 인정하고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났다.

결혼 1년차 여성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의미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새로 생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수긍하며 감당해내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요소가 나타났다. 이는 신혼기에는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됨의 준비, 일과 가족의 조화, 재정계획, 친족과의 관계 등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어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선행연구[13]와 유사한 결과로, 결혼 후 우선적으로 마주치는 발달과업은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으로, 기존의 미혼자녀에서 부부 혹은 또다른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새로운 역할의 적응이 우선적인 요소로 생각된다.

두 번째, 결혼 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면서 다름이 증가하였다. 또한 결혼 전, 후 상대방에 대해 가졌던 기대의 차이와 달라진 본인의 모습으로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는 결혼초기 부부들은 습관 차이, 원가족의 문화차이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연구와 [4,5]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가치관, 규범, 사회적 태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 만족을 저해하는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존재한다고 보고한 연구[7]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결혼의 현실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위기에 대해 부부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 한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혼 전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됨으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수긍하며 감당해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신혼기는 두 사람간의 정서적 적응에서부터 역할적응, 양가 집안에 대한 적응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발달과업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연구결과[14]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결혼초기 결혼생활 적응을 위해

자녀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준비와 양육 방식의 합의, 부모역할을 위한 준비 등 결혼초기의 발달과업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결혼을 통하여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와 새로운 부모님이 생겼다는 것에 결혼 전 생활보다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이는 결혼 후 시가의 인척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결혼 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충분한 교류시간을 갖고 배우자의 원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연구와 유사하다[15]. 결혼초기에는 정서적 적응과 역할 적응 등을 달성해야하며, 이를 위한 가족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부생활을 통해 부부 서로의 갈등과 시가와와의 좋은 관계 유지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면서 결혼생활을 새롭게 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신혼부부 가족되기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G시에 거주하는 결혼한 지 1년 이내의 여성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8년 7월에서 2019년 4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 되기 경험은 '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가족에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서로의 다름에 부딪힘',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부담을 느낌', '갈등의 해결, 진정한 가족의 시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되기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9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일반화의 한계점이 있어 반복적인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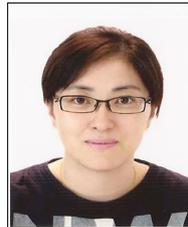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 1년차 여성의 가족되기 및 적응을 돕기 위한 결혼 초기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지도할 지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K. H. Chae, "The Effect of the Married Couple Harmony Program on the Married Couple Harmony", *Humanities Research*, Vol.47, pp. 593-620, 2014
UCI : G704-SER000012761.2014..47.009
- [2] E. H. Lee, J. M. Lee, "The Influence of the Differences between Couple's Marital Expectation - Marital Realities and Couple Communication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0, No.4, pp. 25-35, 2012.
DOI: <https://doi.org/10.7466/IKhma.2012.30.4.025>
- [3] Statistics Korea, 2020 Marital Divorce Statistics Press Release [Internet]. [cited 2021 Mar 18].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
- [4] J. Jun, "A Study on Family Therapy Case on the Newlywed Couple Who Decided to Divorce in Their Twen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21, No.3, pp. 535-550, 20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3.38>
- [5] H. J. Kwon, "A Case Study on IMAGO Couple's Counseling in the 40s Who Have Expressed Marital Conflict in Distance", *The 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Vol.1, No.1, pp.49-64. 2020.
- [6] G. R. Choi,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arital Counseling Program : Applied Integrated Approach for Marital Conflict Solu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7, No.3, pp.181-200, 2009.
UCI : G704-000320.2009.27.3.016
- [7] S. K. Nam, "A Case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Transformation of Subject During Pre-divorce Counseling of Newly-wedded Couple",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Vol.11, pp.9-26, 2019.
- [8] J. H. Park, S. Y. L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for Marriage Expectant Coupl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7, No.2 pp.29-43, 2009
- [9] K. S. Park, J. Y.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Internal Variables o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Newly Married Males and Females",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8, No.2, pp.259-283, 2020.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2994>
- [10] J. Y. Choi, "A qualitative Study on Changes in Mother-child Relationship through Marriage Process: Focusing on Christian Famil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3, pp.1697-1725, 2009. DOI: <http://dx.doi.org/10.15703/kjc.10.3.200909.1697>
- [11] A. Giorgi,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Korean qualitative research center(ed.), Symposium of Nursing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Korean qualitative research center. 2004.
- [12] E. Guba, Y. Lincoln,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1989.
- [13] G. Yoo, S. Lee, "The Associations of Anticipated Scenarios of Division of Household Labor with Marriage and Childbirth Intentions among Never-Marri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5, No.1, pp.3-23. 2020.
DOI: <http://dx.doi.org/10.21321/jfr.25.1.3>
- [14] S. K. Cho, U. S. Choi, "The Relationship of Traits of Family of Origin, Marital Conflicts and the Needs for Counselling among Married Couples in Early Stage of Marri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4, No.5, pp.17-35, 2006. UCI : G704-000320.2006.24.5.003
- [15] H. R. Kim, H. M. Jung, S. A.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men's Perceived Support From Mother-in-law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ion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7, No.2, pp.45-58, 2012.
UCI : G704-001334.2012.17.2.004

박미라(Meera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대구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3년 3월 ~ 2015년 12월 :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신생아관리, 임신·분만, 모유수유, 성교육, 생명의료윤리, 비교과

여 형 남(Hyeongnam Yeo)

[정회원]



- 2008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전공) 석사
- 2015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성인전공)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성인간호, 질적연구, 호스피스간호

양 현 주(Hyun-Joo Yang)

[정회원]



- 2004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8월 : 경남 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모유수유, 건강증진, 생식건강, 노인건강, 치매